

SW 플래그쉽 프로젝트 공동워크샵 정리 (차량SW 분과 발표 및 Q&A 위주)

1. 목적 : 4개 분과별 활동결과 발표 및 제안요청서(RFP) 내용 검토
(분과 : 인터넷서비스SW, 차량SW, 항공SW, 로봇SW)
2. 일시 : 2006. 10. 23.(월) 14:00 - 10. 24.(화) 14:30
3. 장소 : 힐사이드호텔 대강당 (용인)
4. 참석 : 정통부 박재문단장과 IITA, ETRI, 타분야 분과관련 인원(60여명)
 - 정통부 : 박재문 단장, 이상훈 반장, 박태완 사무관 등
 - IITA : 곽종철 PM, 박장석 기술역, 김기완, 김명희, 성명호 등
 - 차량SW분과 : 1) 김홍남, 양영종, 임동선, 이형석, 박태준
2) 김희준, 정우영, 양연모, 이재수, 윤형진, 이덕준

5. 정리 : 박재문 (단장, MIC)

- 가. SW 플래그쉽 프로젝트는 기획보고서를 통하여 제품/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언급하되, 기존 기술과 추가 기술로 성공 가능한 사업임을 정통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R&D 강화가 아닌 “서비스 창출” 임
- 나.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많은 연구개발 과제가 기술적 성과는 있었으나 기술단계에서 머물고 시장 진입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고, 기업이 깊게 참여하지 못한 결과 연구결과물로서 그치고 상업화 추진이 실패하였음. 기존 기술에 신규 개발기술을 접목하여 실제 적용을 추진하는 과제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 다. 결국,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디자인 되어야 함. 최종 서비스 측면에서 항공SW를 제외한 다른 과제는 국민이 느껴지는 END 서비스가 부족하므로 이것이 부각되어야 함. 서비스 실체인 기업 주체의 과제 추진도 희망함
- 라. 정통부 주관으로 11월/초에 산업체 중심회의를 실시할 것임. 기획보고서의 기술에서 “상용화 부문”의 강조가 필요함

6. 정통부 및 진흥원 의견

- o 워크샵 보완사항 총평 : 곽종철 (PM, IITA) - 차량SW부문(VESP) 관련
 - 서비스의 구체적 Define 필요.
 - 서버단, 차량단, 통신단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 필요

※ 참고 : 워크샵 주요 Q&A (차량SW 분과)

Q(홍성수/서울대) : Qplus를 AUTOSAR에 올리는가?

A(김홍남) : 전장용은 새로 구현하고, 멀미용은 Qplus를 보완함

Q(홍성수) : AUTOSAR는 8, 16bit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적 바인딩 등을 포기하고 제어시스템에 특화된 것임. 통합은 어렵다고 봄

A(김홍남) : 2개의 OS (전장용, Qplus)로 상호 연동하여 해결함

Q(서일홍) : 차량의 경우, Safety가 대단히 중요함. 인포테인먼트와 전장제어의 접목은 어려움. (∵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음). 초당 70-80m의 시속 160Km 속도 주행시 몇초 내에 서버에서 차량으로 연락이 이루어져야 됨)

A(김홍남) : 도메인별로 구분해야 하나, 향후 크로스 도메인이 필요하다고 OEM사에서 판단하고 있음. 서버를 통하여 사고 내용을 전파하기에는 시간상 곤란하므로 차간통신 (Ad-hoc)으로 해결함. 수십m-수백m 내에서 차간통신으로 해결함. 서버는 과제내의 업무내용이 아니므로 현대차와 협의할 예정임

Q(김경진/아이오테크) : 차량 수백대가 투입되는 검증 부분이 필요할 것임

A(김홍남) : 현대차가 검증에 대하여 과제 수행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토의 함. 1차년도 개발, 2차년도 현대차 실차 시험후, 3차년도 상용화 준비 예정

E(곽종철/PM) : 현대차의 참여는 필수임

Q(홍성수) : 만도 등의 Tier-1 전장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임

E(곽종철) : 산자부와의 중복성 검토에서 거론될 소지가 많음.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검토가 필요함

Q(곽종철) : 현대차에서의 의견은 어떤가?

A(김희준/현대자동차) : 실용화 부문에 대하여 최대 역량을 추진중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음. 임원분들께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유럽 및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미흡함. AUTOSAR 수용으로 국내부터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Q(박태완/MIC) : 기 확보기술 활용과 신규 개발기술의 정리가 필요함

A(김홍남) : 다음에 보충할 예정임